**추위에 강한 곤충과 빙기의 생존자**

구시로 습원의 기후는 지난 6,000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어, 추위에 강한 많은 종의 곤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. 이 습원에는 1,000종이 넘는 곤충이 살고 있습니다. 최종빙기 때 살아남은 종도 있으며 더 나중에 이 지역에 들어온 종도 있습니다.

**기후변화의 영향**

구시로 지방 곤충의 대부분이 과거에는 홋카이도의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서식했습니다. 홋카이도의 많은 지역에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곤충들은 구시로의 시원한 습원으로 이동한 것입니다. 구시로의 연평균 기온은 5.8도입니다. 이런 이동 추세는 지구의 기후와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.

**빙기의 생존자**

구시로 습원에 있는 곤충의 아종 중에는 이지마별박이왕잠자리(학명: Aeshna subarctica)와 물거미의 아종(학명: Argyroneta aquatica japonica) 등 최종빙기 때부터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종이 있습니다. 이 아종들은 유럽과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견되는 아종과 거의 유사합니다.

**보호종**

구시로 습원은 일본의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멸종위기종 곤충의 보금자리입니다. 이 곤충 중에는 독특한 하얀 얼굴을 한 큰진주잠자리(학명: Leucorrhinia intermedia ijimai)와 아카메실잠자리(학명: Erythromma humerale), 그리고 참매미(학명: Hyalessa maculaticollis) 등이 있습니다. 이 지역의 대부분은 참매미가 살기에는 너무 춥지만, 굿샤로호의 와코토반도는 지열 덕분에 따뜻해서 참매미가 번식하고 있습니다. 와코토반도는 일본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참매미의 서식지입니다.